
볼리비아의 국경들: 통로와 미로 사이

비앙카 데 마르치 모야노

아르헨티나 국립 과학기술원 연구원

원제와 출처: Bianca de Marchi Moyano, "Fronteras bolivianas: entre el corredor y el laberinto", *Nueva Sociedad*, No. 289, septiembre–octubre de 2020, pp. 107–117.

핵심어: 통로, 국경, 미로,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의 국경 지대는 지역에 따라 사회경제적 집단, 정치 조직 그리고 생태적인 역학 관계들로 인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국경 지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조망해 보기 위해, 서로 대립적인 '통로와 미로'라는 개념을 통해 국경 지대의 복합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로와 미로라는 개념을 통해 볼리비아 국경 지대를 살펴보려는 생각은 볼리비아에 입국하여 이동하고 출국하는 실제 상황과 여러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즉 어떤 경우에 볼리비아 국경은 대륙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이동하는 데 유용한 위치로 통행의 공간이 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그 비밀과 해답을 아는 노련한 사람들만이 이동할 수

있는 복잡한 수수께끼 같은 곳이 되기도 하다.

볼리비아의 국경은 약 6,900킬로미터에 달하고,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볼리비아의 9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오직 코차밤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인접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나머지 행정구역에는 20개의 공식적인 그리고 많은 비공식적인 국경 통과 지점을 통해 인접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72개 자치단체가 있다.¹⁾ 일반적으로 이 국경들은 볼리비아의 대륙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륙적인 성격은 해양으로 출구가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볼리비아가 자리 잡게 된 정착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즉 볼리비아는 식민시기부터 안데스 산악 지대의 광물, 그리고 아마존과 플라타 강 유역의 다른 자연 자원을 얻기 위해 남아메리카의 중앙에 자리 잡았던 것이다.

국경 지대의 사회문화적이고 상업적인 역학관계에 따른 상호 교환에 발맞춰 국경지대에 8개의 도시가 성장했다. 데사구아데로는 페루와 볼리비아 두 나라에 걸쳐 있지만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한다. 비야손, 베르메호 그리고 야쿠이바는 아르헨티나와의 국경 지대에 위치해 있고, 푸에르토 키하로, 산 마티아스, 구아야라메린, 그리고 코비하는 브라질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볼리비아의 가장 큰 국경은 브라질과 맞대고 있으며, 전체 국경의 거의 50%에 달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 언급한 도시들 중 4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칠레 및 파라과이와의 국경에는 도시 정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파라과이와의 국경은 볼리비아의 두 번째로 긴 국경으로 길이가 750킬로미터를 넘지만, 거의 인구가 살고 있지 않으며 국경 양쪽에는 각국의 넓은 국가 보호 지역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국경 지대에서 이동이 거의 없다는

1) Rolando Sánchez: «Ciudades fronterizas de Bolivia: condiciones socioeconómicas y bienestar social» en Temas Sociales N° 42, 2018.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움직임이 보다 더 농촌적이라고 것을 의미한다. 칠레와의 국경지역에서도 농촌적인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볼리비아 경제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국경 통과가 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해서 앞에 언급한 통로와 미로라는 모습을 통해 볼리비아의 국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기한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 지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이동과 그 통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국경 지대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국경은 인력과 재화의 유통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필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이 명백하게 제한되고, 사회적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리비아 국경은 어떻게 변했는가?

통로와 국경

많은 연구에서 볼리비아는 그 위치로 인해 태평양 연안의 항구들과 대서양 사이에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간주되었다.²⁾ 도로망이 부족한 볼리비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스팔트가 깔린 유일한 육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볼리비아의 영토를 관통하는 도로였다. 이 도로의 중요성은 동일 선상에 계획된 두 대양을 연결하는 철로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입증된다. 이것들은 국경 지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리적인 담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선상에 있는 국경 통과지점을 중심으로, 국경 지대는 교통이 집중되어 이동을

2) Laetitia Perrier-Bruslé: 《La integración continental sudamericana, inscripción espacial y dispositivo discursivo. Apuntes desde Bolivia, el país de contactos》 en Journal of Latin American Geography vol. 4 N° 2, 2015; B. De Marchi Moyano, Huascar Ignacio Morales Quintela y María Cristina Machicado Murillo: 《Bolivia: estrategias viales hacia un 'país de contactos'》 en Revista de Transporte y Territorio N° 18, 2018.

편리하게 해 주는 지역으로 상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는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까지 볼리비아 국경 통과를 교통을 통제하고 유동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제도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 및 광물과 그 부산물 같은 핵심 생산물을 수출하고 무엇보다도 태평양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 육상 이동성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장소들이 있다. 탐보 케마도와 피시가는 칠레의 아리카와 이키케 항과 연결된 육상 교통의 주요 거점들이다. 이 국경 지대는 스페인 정복 이전부터 존재했던 아이마라 족들의 연결망의 유산이자, 항구를 통해 대륙 내부와 연결되는 교통망을 확보하고자 했던 식민 시대의 유산이다. 이 국경 지대는 독립 이후에 다시 활성화되었는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해안 지대의 질산염 채굴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1879년 칠레,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의 흔적 또한 가지고 있다. 이 전쟁에서 볼리비아는 “해안 국가로서의 자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는 이 상실을 보상하고 교통과 물류를 위한 여러 조약을 제안했지만, 유동성에 있어 체증과 지역 발전에 있어 나타나는 긴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에게 칠레 항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국경 통과 지점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 국경 통과와 관련해 관세적인 측면과 항구 운영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효과적인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광물 수출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고, 유지되고 있던 해상교통을 통해 일부 진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육로를 통해 진행되었다. 오랫동안 볼리비아 서부 국경을 통해 주석, 은 그리고 아연을 열차로 운반하면서 일방통행의 터널 이미지를 포함한 통로 이미지가 뿌리 깊게 만들어졌다. 기차는 도로 보다는 횡수가 작았지만 수송량은 더

많았고, 보다 통제하기 쉬웠지만 도로와 달리 운반 과정에서 주위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칠레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다양한 공산품들은 아마존 지역을 포함하여 볼리비아 동쪽 국경 인근 지역까지 볼리비아 시장에 폭넓게 퍼진다. 이러한 여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브라질 국경에 위치한 도시들에서 “츄토스”라는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는 아시아산 중고 자동차들이다. 그리고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중고 의류, 칠레산 사과, 중국산 전자제품 등 태평양 항구를 통해 유입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³⁾ 국경지대의 브라질인들과 아르헨티나인들은 대체적으로 자국 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이런 종류의 상품을 볼리비아 시장에서 구매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 이런 측면에서 통로라는 사고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참조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수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식적인 화물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투명한 통로는 아니다. 실제로, 교통 분야의 노동조합이나 관련 조직들 그리고 국내외 유통망이 이른바 “대중 경제”라고 부르는 것이⁴⁾, 상품이 수입되고 유통되는 이 통로를 작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통망들이 등장하게 된 주요한 계기는 칠레와의 국경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마라 공동체이다. 이들이 양국 사이에서 화물을 운반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숙련도와 물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피시가의 국경 통과지점이 있는 도시인 사바야에 살고 있는 아이마라 부족들은 이 국경 통과 지점을 통과한 상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3) Alberto Hernández Hernández y Fernanda Loureiro Ferreira: ‘Ropas americanas: comercio, contrabando y compradores de ropa usada en la frontera de Corumbá, Brasil, y Puerto Quijarro, Bolivia’ en Frontera Norte vol. 29 N° 57, 1-6/2017.

4) Juan Arbona, María Elena Canedo, Carmen Medeiros y Nico Tassi: ‘El sistema económico popular. Consolidación y expansión de la economía popular en Bolivia’ en N. Tassi, Alfonso Hinojosa y Richard Canaviri: La economía popular en Bolivia: tres miradas,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La Paz, 2015.

다양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근 국경 통과 지역이나 비공식적인 통과 지점들과 관련된 유통망 또한 갖고 있었다. 이런 상업과 유통 관계는 아이마라 가문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볼리비아 주요 시장들 까지 다른 국경 지대나 지역적 요소들과 연계를 가지면서 확대되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볼리비아 통로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칠레 국경 지대와 거주자들은 정부의 주요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공식적인 국경 통과에 내재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적인 국경 통과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이 지역에서 밀무역을 막기 위해 한층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마지막 조치에서 불법적인 통관을 추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외견상 이 지역에 불법적인 수입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이 더 집중적인 추적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마지막 총선들(결국 무효가 된)에서 여당인 사회주의운동당(MAS)이 사바야 시에서 승리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이것은 오루로 지역의 다른 도시들의 선거 결과들과는 대조적이다.

피시가에서는 2020년 3월말과 4월 초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폐쇄와 검역 기간 동안 칠레에서 볼리비아로 입국하려는 볼리비아 인들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나타났다. 볼리비아 정부(임시 과도 정부)는 칠레에서 계절노동이나 대체노동에 종사하다가 귀국하려는 자국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당시 극단적인 정치 대립과 외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볼리비아 정부가 이 귀국 수요에 대해 취했던 첫 번째 대응은 사회주의운동당이 사주한 선동가들이라고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시가에 검역 수용소를 설치하면서 상황은 며칠 만에 해결되었다. 15일 동안 자국민들이 수 백 명씩 무리를 지어 이 수용소에 들어왔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키케에 마련된 수용 공간에 수 주 동안 고립되어 있었지만 말이다. 이후 입국자들은 피시가에서 내륙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이동해 갔다. 이런 상황은 한 번 더 통과 장소이자 통로의 출발 지점으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드러낸다. 특히, 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서 고국을 떠났던 자국민들이 이용했다.⁵⁾ 실제로 이 국경을 통해서 입국한 외국인 입국자들은 거의 대부분 볼리비아를 최종 목적지로 선택하지 않았다. 통과 공간이자 다른 이웃 국가에 가기 위한 지름길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피시가는 전략적인 지점이지만 그다지 우호적이 아니었고, 이주자들이 남으려고 하는 장소는 아니었다.

미로와 국경

볼리비아는 미로 같다고 정의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이고 공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인 층위에서 볼 때, 경제 활동의 종류에 따라 소지주 혹은 동업자 모임, 그리고 노동조합 등의 형식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결합하고 연합을 조직하는 형태는 대부분의 볼리비아에서 사회적 모델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대가족 제도와 대부 제도를 통해 보강되어 다소 폐쇄적이고 중복된 조직 형태를 갖는데,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특징에 따라 특수한 모습을 띤다. 상품의 유통과 판매는 대부분 이런 종류의 관계를 따라가면서 국경까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까지 진행된다. 사바야의 여러 가문들이 태평양을 통해 유입된 상품들을 아마존 북동부 지역까지 유통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면, 과아아라메린 지역에서는 브라질 국경의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마모레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특수한 자질을 이 지역 교통부문 노동조합들이 가지고 있다.

5) 볼리비아의 이민에 관한 자료들은 국외 이주보다 국내 이주가 더 많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의 비교 자료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In)movilidad en las Américas”, <www.inmovilidadamericas.org/bolivia>.

이 브라질 국경의 아마존 유역에서 물의 움직임은 미로처럼 매우 복잡해서 통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볼리비아는 20세기 초반의 자국 방어를 포함해서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판도 주의 아크레 강과 아부나 강 위에 설정된 현재 국경은 볼리비아와 브라질이 각자 아크레 “전쟁” 혹은 “분쟁”이라고 부르는 고무 채취가 절정에 달했을 때 벌어졌던 아마존 유역을 둘러싼 갈등의 결과다.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지키기 위해, 볼리비아 정부는 이동시간이 수개월이나 걸렸던 대서양을 통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분쟁 지역에 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들을 사용해야 했다. 최근에는 아마존 지역과 국경 지대에 위치한 대부분의 거주지들이 통행 가능한 연결망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이러한 연결망의 많은 부분은 육상으로 되어 있고 강들을 건너기 위해서는 바지선에 의존해야 한다. 이처럼 교량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된 선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2006~2019) 세 가지 주요 전략을 통해서 이 아마존 유역의 국경을 효과적으로 전유하고자 했다. 그것은 통합 도로망 개발, 안데스 지역 출신의 농촌 가족들에게 공유지를 배분함으로써 거주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정부의 안데스 지역 중시정책으로 인해 방치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국경지대 개발기구(Ademaf)”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수단들은 활발한 국경자유무역지대를 가지고 있고, 2012년 인구 성장률이 107%를 기록했던 코비하 같은 도시들에는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베니주의 리베랄타와 연결된 국경 도시이자 지역 엘리트들이 보다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아야라메린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조치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소규모에 불과한 세관, 경찰, 군 인력들은 항구 통행, 마모레 강 그리고 강을 따라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는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이 지역 거주자들이 브라질에서 공산품이나 건축자재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연료(볼리비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 값이 싼)와 다른 불법 상품을 수출하는 등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밀무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 정부가 이런 현상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장애물 또한 미로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볼리비아의 관료제는 최근 14년 동안 확대되었고 부패를 막기 위한 법률들이 만들어졌지만, 관료들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능력을 진작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정보의 흐름과 공적 능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절차와 요건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리비아의 국가적 수행성은 미로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특징은 대체적으로 볼리비아 사회 전체를 특징짓는 노동조합이나 연합 성격의 조직형태와 일치한다. 따라서 국경 지대의 복합적이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이고 물질적 이해관계는 고유의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장애물들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는 정부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칠레 국경지대에서 밀무역을 막기 위한 이미 언급한 행위들은 미로보다는 통로로서 기능하려는 경향이 강한 칠레 국경의 특징이 가져온 하나의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역 및 확산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볼리비아 동부 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나타나는 난맥상은 이런 종류의 비상 상황에 대한 볼리비아의 미로 같은 관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에 의해 일정 부분 설명된다. 팬데믹 초기 4개월 동안, 산타 크루스와 베니 주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은 주들에 속했고(2020년 8월 12일까지 산타 크루스는 30,000명 이상, 베니 주의 경우 5,000명 이상이 확진되었다), 공식적인 보고에 따르면 주 수도들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⁶⁾ 브라질 국경 도시들의 확진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고 역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혹은 덩기열)에 맞서는 의료 기반시설과 인적 자원의 역량,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이런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국경 지역에서는 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은 악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임시 정부가 미로 같은 관료제 문제를 해결하고 관료 조직을 노조 및 연합 조직과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은 이전 정부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다. 2020년 6월부터 “역동적인 방역(즉, 유연한 방역)을 선언하면서, 볼리비아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지방 정부들에 의료 통제 수단들을 위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 폐쇄와 이동금지라는 국경 지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는 이런 공중 보건 통제 조치들을 국경의 자치 단체에 위임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인 국경 통과 지점들에서는 여러 상품들이 일정 부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정부의 제재 조치와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하고 있을 지라도, 기본적인 생필품들과 몇몇 재입국자들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통제할 정도로 충분한 통제장치가 존재한다. 특히 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경이 명확하지 않고 거의 정돈되지 않은 아마존 유역에서는, 사회적이고 상업적인 관계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감내해야 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제 보다는 생물학적 역학 관계의 논리를 더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팬데믹 상황의 볼리비아 국경들

볼리비아는 3월 17일 최고 각령 4229호를 통해 국경 폐쇄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3월 11일 보고된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들과 이후 지역적 확산에

6) Ministerio de Salud, Gobierno del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Índice de riesgo municipal covid-19. (Información analizada hasta la semana epidemiológica 31), La Paz, 2020.

따른 대응 조치였다. 이 조치의 목표는 국내의 이동을 통제하고, 부족한 입원실과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위한 것이었다. 이 조치의 성공은 부분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국내 및 국경 이동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리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주요 도시의 병원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에는 항공을 통해서만 유입되었지만, 이 명령은 모든 종류의 국경(육로, 수로, 호수, 항공)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첫 확진자들이 나타난 지 이틀 후에 취해진 초기 제한 조치들은 전파 위험이 크다고 간주된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종류의 예방 조치는 볼리비아가 인구 수용국이라기 보다는 송출국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준다. 또한 육로 이동은 전지구적으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장거리나 항공 여행과 거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보여준다. 주로 유럽 도시 외곽에 거주하면서 가사 노동에 종사하던 수천 명의 볼리비아인들이 고향인 오루로와 산타 크루스로 돌아오면서 부터 초기 확진자가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접 국가들에 초기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했던 경고는 의미를 갖는다. 즉,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공식적인 국경을 폐쇄하는 경우에 비공식적인 국경 통과 지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다양한 국경 지대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육상, 수상, 그리고 호수를 통해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쪽 이용 수단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 쪽 이용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브라질뿐만 아니라 페루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아마존 유역에서 비공식적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가 관찰되는데, 이것은 국경 지대의 복합적인 의료 위기 상황을 야기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이 국경 지대에

거주하던 원주민과 같은 이미 취약해진 집단들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⁷⁾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는 상황이 이와 달랐다.

아르헨티나와 국경 지대에 위치한 세 도시(비야손, 베르메호, 야쿠이바)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산타크루스와 밀접하게 연결된 야쿠이바는 확진자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야쿠이바는 베르메호와 마찬가지로 높은 위험단계에 속한다고 평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 반대편의 아르헨티나 도시인 살바도르 마사의 대응을 살펴보면, 국경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 수단을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강화했다. 이와 유사한 조치가 라 키아카와 비야손 사이에서 벌어졌다. 즉, 아르헨티나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6월 둘째 주에 통제 유연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쪽에서 초기 확진자가 보고되자마자 국경 강화조치를 실시했다.

볼리비아의 국경이 위치한 칠레와 인접한 고원 지역, 브라질과 인접한 아마존 지역,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인접한 차코 및 푸노 지역에 대한 간략한 관찰을 통해 통로는 바이러스 확산을 손쉽게 억제할 수 있게 해 주는 반면에, 미로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 지를 살펴보았다.⁸⁾ 이 통로의 모습이 보다 잘 보이는 피시가 지역에서는 8월 12일까지 확진자가 6명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찰들을 보충하면서 국경 지대의 움직임은 팬데믹 상황에서 인접 국가들이 취한 형식과 깊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

7) 카우바바 족의 바이러스 감염은 리베랄타와 구아야라메린에 인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위협의 한 예이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Centro de Estudios Jurídicos e Investigación Social: 《Situación de los pueblos indígenas de tierras bajas de Bolivia frente al covid-19》, 6/2020, <www.cejis.org/wp-content/uploads/2020/06/situacion_ppii_covid_090620_f.pdf>.

8) 페루와 국경 지대에 있는 데사구아테로 지역, 브라질과 국경 지대에 있는 산마티아스 혹은 푸에르토 키하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측면들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언급한 미로와 통로의 특징들이 서로 다른 정도로 섞여 있는 지역들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급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에 있는 도시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조적인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들은 볼리비아 국경 지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습들의 많은 부분들을 확인해 준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국경 지대가 어떻게 만남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추후 상황에 달려 있다.

이성훈 옮김